



2022년 7월 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6.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7. 5.(화)	담당부서	수소경제정책과
담당과장	이옥현 과장(044-203-3950)	담당자	한혜원 사무관(044-203-3954)

5,000억원 규모 "수소펀드" 출범,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

- 산업부 2차관, 수소분야 투자 활성화 위한
① 금융지원, ② 상생협력, ③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 약속 -

- '22.7.6(수)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DDP(동대문디자인플라자)에서 개최된 "2022 H₂ 인베스터 데이(Investor day)"에 참석하였음
- 2022 H₂ 인베스터 데이(Investor day) 행사는 수소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,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*이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함
 - *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17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발족('21.9월) - (회원사) 현대차, SK, 포스코(공동의장사), 한화, 롯데, 현대중공업, GS칼텍스, 효성, 두산, 코오롱, 삼성물산, 이수, 일진 E1, 고려아연, 세아철강특수강, LG화학
- 이번 행사에서 수소펀드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,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음

< 2022 H₂ 인베스터 데이 개요 >

- ◆ 일시/장소 : '22.7.6(수)-7(목), 10:00~16:00 / DDP(동대문디자인플라자)
- ◆ 참석 :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, 정책금융기관(무보, 수은, 산은), 에너지공공기관(한전, 석유공사, 가스공사),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및 협력사, 국내외 금융기관, 글로벌 에너지 기업 등
- ◆ 내용 : 수소펀드 조성 등 민간 중심의 수소 산업 투자 확대 계획 및 정부의 지원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

□ 수소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하였고,

- 국내 기업(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등)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,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하여, 10년간 운용 후 청산할 예정임
-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(Stonepeak), 자펀드 운용사인 노애펙트너스(Noh&Partners)와 함께 금년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하여,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예정임
- 수소펀드로 국내외 수소 생산·유통·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, 핵심 수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*를 진행할 예정임

* (예) 국내 수소 공급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, 초기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글로벌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, 유망 수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 등

□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, ①금융 지원, ②상생협력, ③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

① (금융지원) 정책금융기관(무보, 산은, 수은)은 수소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,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

- ▶ (무보)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국내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무보가 지원하는 경우, 우대 지원(보험료 할인(최대 20%), 한도 상향(총사업비 100% 이내), 부보율 확대(최대 100%))
- 수소펀드로 투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무보 지원시 우대 강화(보험료할인, 한도확대 등)
- ▶ (수은) 기술개발, 시설투자 등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대해 맞춤형 우대 지원(대출한도 확대(최대 10%p), 금리 우대(대출-최대 1.0%p, 보증-최대 0.3%p 인하))
- ▶ (산은) “에너지전환자금”을 중심으로 수소펀드가 투자한 사업 및 기업 앞 금융지원 (금리 우대(0.4%p(중소·중견 0.9%p)인하))

② (상생협력) 에너지공공기관(한전, 석유공사, 가스공사, 발전6사)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기업의 R&D, 기술사업화,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

- ▶ (한전)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해외에 시범 적용, 협력 연구 개발 사업 지원
- ▶ (석유공사) 수소암모니아 국내 도입 인프라 구축·운영 사업에 납품 및 참여기회 확대
- ▶ (가스공사)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로 등록하여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
- ▶ (한수원)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(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), 국내외 판로 지원

- ▶ (남동발전) 실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설비나 부지제공, 컨설팅 비용 부담
- ▶ (동서발전)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 지원, 공동사업개발 및 판로확보 등 협업 추진
- ▶ (중부발전) 혁신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 및 현장 실증 지원, 수소 사업에 기자재 활용
- ▶ (남부발전)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시험 지원, 제품홍보 지원
- ▶ (서부발전) 실증시험 및 공동 연구개발,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

③ (규제혁신) 산업부는 수소 프로젝트 및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 하고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

□ 이날,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, 무보, 수은, 산은 등 정책금융 기관과 한전, 석유공사,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,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였음

□ 한편, H₂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수소펀드 출범식 이외에 민간 기업별 수소 사업 비전 및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세션도 마련되었으며,

○ 국제기구(IRENA, 국제재생에너지기구), 해외 유명 금융기관 및 에너지 기업* 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투자 전망·사업 계획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회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임

* (해외 금융기관) UBS, BARCLAYS, Allianz, BNP Paribas, Lgps 등
(글로벌 에너지기업) Orsted, Engie, Nel Hydrogen, REW, OGC, InterContinental Energy 등

□ 박 차관은, “수소는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현실적 과제인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○ “금년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,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”했다고 밝히며,

○ “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”을 약속하였음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한혜원 사무관(☎ 044-203-39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행사 개요

- 일시 : '22.7.6(수)~7(목), 10:00~16:00
- 장소 : DDP(동대문디자인플라자) 지하 2층 알림터 제1관, 제2관
- 목적 : 수소펀드 조성 등 민간 중심의 수소 산업 투자 확대 계획 및 정부의 지원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
- 참석자 : 정부, 공공기관, 국내외 기업 및 투자기업 등 400명 내외
 - (정부) 산업부 박일준 2차관, 수소경제정책관 등
 - (공공기관) 에너지한전, 석유공사, 가스공사, 정책금융무보, 수은, 산은
 - (유관기업)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 17개 회원사 및 협력사, 국내외 금융기관, 글로벌 에너지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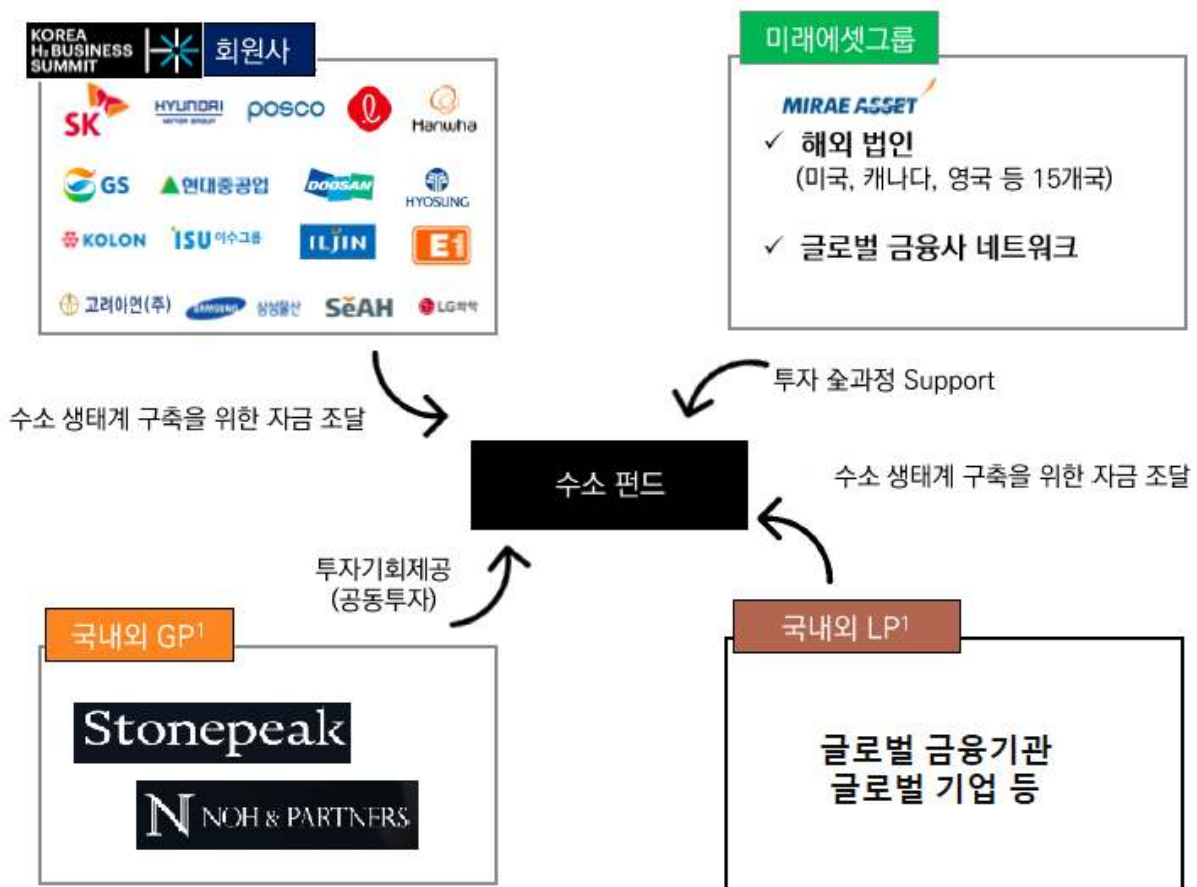
□ 세부 일정(안)

날 짜	시 간	내 용	비 고
7.6(수)	09:55~10:00	- 개회식	
	10:00~10:05	- 축 사	산업부 2차관
	10:05~10:15	- 인베스터 데이 출범식	회원사
	10:15~10:20	- 수소펀드 출범식	미래에셋(자산운용사)
	10:20~10:30	- 수소펀드 조성지원 MOU 체결식	회원사-공공기관간 협약
	10:30~10:45	- 수소펀드 소개	미래에셋(자산운용사)
	10:45~11:00	- 기조 연설	딜로이트(사무국)
	11:00~16:10	- 민간기업 투자 계획 발표 및 패널 토론	
7.7(목)	09:00~15:30	- 민간기업 투자 계획 발표 및 패널 토론	
	15:30~	- 폐회식	

참고 2

수소펀드 구조 및 개요

- 민간 기업과 국내외 출자를 통해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자산 운용사 등을 활용하여 수소 인프라 및 기술 투자 진행
 - (조성규모) Korea H₂ Business Summit 회원사 + 외부 투자자를 통해 수소펀드 조성(약 5,000억원 규모 목표)
 - (운영방식) 모펀드 자산운용사(미래에셋 컨소시엄), 자펀드 운용사(노앤파트너스), 공동투자 파트너(스톤피크)가 투자자 모집 및 자금 매칭
 - (투자형태) 자펀드 구성, 프로젝트 및 기업에 직접 투자, 공동투자 등 수소 펀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투자 진행
 - (투자대상) ①국내외 수소 생산·유통 인프라 구축 및 ②핵심 수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
- * 투자심의위원회(출자자, 운영사 등으로 구성)를 통해 투자 검토 및 분석, 대상 등 투자 관련 주요 사항 논의 예정



*1 : 현재 논의 중인 GP 및 LP이며 향후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